【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16일 주일은 종려주일로 17일-22일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23일 주일은 부활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4. 23일 부활절 예배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예식을 위해 예배 후 세례자 문답교육이 있습니다. 아동세례는 6-12세까지며 올해는 이의진, 안수진, 이상준 어린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5. 장기결석자들과 병환중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500.00	
감사헌금:	$200.00	
주일헌금:	$10.00	
특별헌금:	$0.00	**합 계: $71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8년 3월 9일 제8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 성 기 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36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오현 집사
성 찬 초 대	Invitation of Communion	다 같 이

집례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기 위하여 나아오십시오.

다같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집례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다같이: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비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집례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참회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 같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입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고 인색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회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 앙 고 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성만찬제정사		집 례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임재기원 Anointing of Holy Spirit 집 례 자

집례자: 사랑의 주님, 거룩한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사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몸과 마음이 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같이: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 찬 분 급 Communion 집 례 자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Prayer 집 례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성찬에 성령으로 함께 하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경험하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을 세워 칭찬과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주의 나라 확장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 회 소 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하 9:1-13	인 도 자
설 교	은혜를 나누는 자	이진우 목사
찬송과 봉헌	Hymn 410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안미나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6시(월-금)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남관희 집사	안찬호 성도
선 교 사 역	이오현 집사	정윤정 성도
미디어 사 역	박종갑 장로	윤지호 집사
실 버 사 역	김상안 집사	박종갑 장로
친 교 사 역	이현미 집사	김정순 권사
찬 양 사 역	이오현 집사	안미나 집사
양 육 사 역	Kaitlan Hronek	